기조연설

김황식 대한민국 국무총리

존경하는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님, 폴 존 키팅 前 호주 총리님, 람베르토 자니에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사무총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멀리 해외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인 것처럼 지금 세계는 전환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최근 국제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아시아의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변화입니다.

아시아는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연평균 9.4%라는 괄목할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는 '아시아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커져가는 아시아의 위상은 동시에 책임의 증가를 의미하며, 늘어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 필요성도 그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세계경제의 위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본주의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의 과욕이 빚어낸 시장만능주의의 오류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2011년의 유럽 발 재정위기는 유럽 각국 정부가 무원칙하게 포퓰리즘을 수용해 온 것이 누적된 결과이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으로 세계 경제는 더욱 더 불확실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등 범지구적 문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 재난재해 증가, 물 부족, 농업 수확량 감소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들의 자원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자원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22억 명의 지구촌 인구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도국을 중심으로 그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IT혁명은 '인터넷 시대'를 넘어'스마트 시대'로 진화하는 중이며, 이 같은 변화는 역내 협력의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39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는 그동안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동아시아만 하더라도 ASEAN,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 · 중 · 일 협의체 등 많은 협력체가 존재하고, 중앙아시아에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등이 서남아시아에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의 협의체가 역내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논의 중심인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ASEAN+3'가 지역협력의 중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ASEAN+3'는 금융위기 대처, 경제통합, 식량안보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구체적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한 · 중 · 일과 아세안 이외에도 미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는 정상간 포럼으로서 역내 안보 · 경제 이슈들을 논의하는 중요한 협의 틀이며, 2008년부터 정례적으로 정상회의가 이뤄지고 있는 한 · 중 · 일 협력체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협력체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역내 · 외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가 '아시아 시대'를 여는 평화와 번영의 지역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도전과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역내 국가 간 갈등 요인을 극복하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2012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아시아 · 태평양 지역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국제무대에서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여전히 도서 영유권 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군비 강화, 군사훈련 실시 등 대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 국가 간 신뢰가 이뤄지지 못하면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은 '화중지병(畵中之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OSCE의 성공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OSCE는 냉전 기간 동안 벌어졌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정치 · 군사', '경제 · 환경', '인권'등 3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유럽 내 안보 증진과 냉전 종식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의 안보협력체가 있지만 아직까지 OSCE 수준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며, 앞으로 역내 안보협력체를 더욱 발전시켜 이 지역에서도 협력 안보, 공동 안보가 구체화되길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였고 아직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민간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GPS 교란을 시도하였으며, 대남 비방과 위협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주민들은 억압적 체제하에서 생명과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개방과 개혁,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단합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양극화 문제를 좁혀 나가야 합니다. 먼저 각국은 국내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만능주의를 보완하여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등의 가치에 바탕을 둔 '공생발전', '따뜻하고 겸손한 자본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생발전'의 지혜를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개발격차를 완화하는데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간 개발격차의 심화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보와 평화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1년 11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급함을 재확인하고, 기존의 선진국-후진국 원조 프레임웍을 탈피해 신흥경제국과 민간도 개발주체로 참여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파트너십'은 개발 원조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9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25%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지난해 세계인을 안타깝게 했던 태국의 대홍수에서 보듯이 지금은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신흥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각국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친환경적 성장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후, 이미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매년 GDP의 2%를 녹색기술 및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녹색성장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2010년 6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발족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는 이를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아 각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미래의 아시아는 배타적 공동체가 아닌 개방적 공동체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기간 중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건설적이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그 동안 격년으로 개최됐던 제주 포럼이 올해부터 매년 개최됨으로써 '21세기를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시아 각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